

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, 청년농 지역별 소통협의체 간담회 개최

3월 19일, 지사 소회의실에서

문경시민신문 기자 / ctn6333@hanmail.net

입력 : 2026년 03월 20일(금) 17:25



© 문경시민신문

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(지사장 이병탁)가 3월 19일, 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,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. 또한, 미래농업의 추진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문경지사는 농지은행의 「맞춤형농지지원사업」 및 「농지임대수탁사업」을 통해 지난해 547농가에 152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이병탁 지사장은 “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”라며 “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인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, 지역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url : http://www.mgnews.kr/default/index_view_page.php?part_idx=235&idx=73762

Copyrights ©문경시민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